

“잘하는 ‘중단거리’에 집중… LCC 맹주로 국내 2위 목표”

제주항공, 중장기 전략 간담회

김이배 대표 ‘비도진세’ 청사진
“내년 하반기 흑자 전환 기대
원가경쟁력 기반 화물사업 강화”

항공업계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단거리 운항 계획과 원가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객 수요 회복과 더불어 화물기 도입과 도심항공교통사업(UAM) 확장에 대한 청사진도 공개했다.

제주항공은 7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공사업 회복 방안과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을 대비한 중장기 전략을 밝히고, 기자단과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대표는 “내년 하반기에는 (항공 시장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며 올해 흑자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향후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잘하는 일 집중”… 중단거리 전략과 화물기에 ‘진심’ 보여

김 대표는 제주항공의 전략과 비전으로 ‘비도진세(備道進世, 도약할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뜻)’



7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제주항공 기자간담회에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주항공

를 제시했다. 그는 “원가경쟁력과 재무건전성 확보하고 B737-8 신기종으로 내년부터는 기단 현대화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물기 사업과 UAM 사업에 진출을 준비하고 여객으로 핵심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으로 사업의 지평을 넓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고 확대는 FSC는 물론 LCC들도 여객 회복이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 확보를 위해 눈여겨보고 적극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다. 제주항공은 오는 9일 B737 화물기를 도입해 본격적으로 항공 화물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

다. 김 대표는 “여객기 공급이 늘어나 빨리 카고 물량이 늘어나겠지만, 전자 상거래 화물이 꾸준히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단거리 화물 사업성은 충분하다”며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화물 사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반납될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장거리 노선보다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LCC 경영의 핵심인 단거리 운항과 원가 절감에 사력을 기울여 LCC 1위 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대표는 “중장거리는 대형기를 들여야 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거리 운항이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단거리 노선이 비용을 충당해줘야 하지만 쉽지 않다고 본다”고 단거리 집중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른 통합 LCC(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출범에 대해서는 “3사가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 시너지를 낼지에 의문이 든다”며 “(정부가) 통합 LCC에 운수권을 다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장거리 운수권이 장거리를 가는 LCC에게 주어진다면 제주항공은 단거리를 받아야 한다”며 “어떤 것이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흑자 전환은 ‘아직’, 정부 지원은 ‘계속해줬으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항공업계에 리오프닝 바람이 불어 FSC들이 속속 흑자 전환을 하는 가운데 제주항공 및 LCC 흑자 경영 전환 시기를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말에는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내년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즈음에는 항

공업계가 정상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재무건전성 약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최근 1분기까지 적자가 계속돼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추가 유상증자에 대한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총 3500억원 가량의 자본을 조달하고, 지난해 10월에는 유상증자를 통해 약 2066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3월 말 연결기준 제주항공의 현금성 자산은 2291억원이며, 총차입금은 6680억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중단될 예정인 정부 특별고용지원금은 계속 지원을 요청했다. 리오프닝 분위기에도 여전히 교대 근무와 무급 휴직 중인 직원들의 복귀를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50% 수준으로 휴직 중이고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휴직자가 줄어들수록 정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국내 제2의 항공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LG엔솔, 獨 대학과 차세대 배터리 공동연구 기아 “메타버스서 ‘니로 EV’ 체험하세요”

윈스터 대학과 공동연구센터 설립 용량 높은 차세대 양극재 등 연구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외 대학 및 기관들과 공동 연구 센터를 설립해 차세대 배터리 원천 기술 확보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윈스터 대학 내 배터리 연구 센터인 MEET와 독일 국가연구기관 헬름홀츠 연구소 윈스터 지부(HIMIS)와 함께 FRL(Frontier Research Lab)을 설립한다고 7일 밝혔다.

FRL은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외 우수 대학 및 기관들과 함께 차세대 배터리 관련 집중 연구개발(R&D) 과제를 설정해 연구하는 공동 연구 센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UCSD), 카이스트(KAIST)와도 FRL을 설립해 배터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MEET FRL’은 ▲배터리 가격을 낮추면서 용량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양극재 기술’ ▲충



LG엔솔 오창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전속도 및 용량 개선에 필수적인 ‘실리콘 음극재 기술’ ▲전해액 조성 및 전극 제조 시 사용하는 슬러리 용매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친환경 공정’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독일 윈스터 대학 MEET는 30년 이상의 배터리 연구 및 다양한 수상 경력의 배터리 최고 권위자인 마틴 빈터 교수가 이끄는 곳으로 차세대 배터리 관련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연구센터”라며 “‘MEET FRL’을 통해 선제적으로 공정 및 소재 관련 선진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글로벌 공동 연구 센터는 총 3곳으로 늘었다. /허정윤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출시 기념 메타버스 이벤트 마련

기아가 7일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니로EV를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

니로EV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01km에 달하는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높은 실내 거주성과 고급 편의사양,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갖췄다. 또 하이테크하고 유니크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 등을 통해 기아의 대표적인 친환경 차량으로 거듭났다.

특히 기아는 이번 니로EV 출시에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니로EV 체험공간 ‘기아 에코 빌리지’도 오픈했다. 니로EV 체험공간이 마련되는 가상세계인 기아 에코 빌리지는 인간과 동물이 교감해 친환경 에너지를 충전하는 ‘친환경 라이프’를 주제로, 마을·해변·에너지 센터·캠핑장 등 총 4가지 공간으로 꾸러졌다.

참가자들은 기아 NFT 센터에서 기

아 EV NFT 작품을 관람하고 딜리버리, 발리볼 등 다양한 게임을 통해 니로EV의 상품성을 체험할 수 있다. 에너지 센터에서 즐기는 스피드 게임은 니로EV를 타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주하며 코인을 획득하는 레이싱 게임이다. 니로EV의 401km 항속거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기아는 참가자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코인으로 니로EV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펫, 나만의 캠핑장을 꾸밀 수 있는 캠핑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딜리버리 게임으로 주간 배달 순위를 겨루는 ‘찾아라 배달왕’, 댄스 게임 정확도로 획득한 점수를 겨루는 ‘신나는 댄스배틀’ 등 게임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아 에코 빌리지에 전시된 니로EV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캠핑존에서 캠핑장을 꾸미고 SNS에 공유한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240Hz 노트북용 OLED’ 첫 선

MSI ‘레이더 GE67 HX’에 탑재

노트북용 OLED도 240Hz 시대가 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주사율 240Hz 노트북용 OLED를 양산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은 MSI의 15.6형 게이밍 노트북 레이더 GE67 HX에 탑재됐다. 8



일 론칭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클라크 펄 MSI 노트북 상품기획부

부총경리는 “OLED는 빠른 응답속도, 넓은 색재현력, 높은 명암비 등의 장점과 더불어 고해상도 및 고주사율 성능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루어 게이밍에 최적화돼 있다”며 “이는 프리미엄 게임을 즐기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고성능 애호가, 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크리에이터에게도 적합한 디스플레이”라고 평가했다. /김재용 기자 juk@

에어부산 항공 특화콘텐츠로 MZ세대와 소통

에어부산이 항공사만이 보여줄 수 있는 항공사 특화 콘텐츠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들로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재미 요소와 유익성을 모두 가미한 영상들을 다양하게 선보여 MZ세대와의 접점을 넓히고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에어부산 유튜브 채널은 국내 저비용항공사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조회수 10만이 넘는 영상 콘텐츠는 28개나 확보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조회수는 325만 뷰를 기록하는 등 MZ세대가 선호하는 트렌디 항공사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에어부산은 구독자들이 직접 제안하고 추천한 ‘에브리’를 애칭으로 정했으며, 유튜브 전담 승무원인 ‘프렌즈’를 통해 구독자와의 유대감도 강화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